

Interview 1

장명희

자료협조, 한옥문화원

한옥문화원이 세워진 지 십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다.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끼셨을 것 같다.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바뀌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한옥도 배울 것이나 가르칠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일례로, 주말에 이곳 북촌 한옥마을에 있으면 그 관심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사람들, 특히 젊은층에게 한옥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관심을 가질 때는 깊이 있는 안목이나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한옥에 대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한옥은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지 어떤 분야든 정의를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한옥은 목조 기둥으로 세워 기와지붕을 얹은 식의 한옥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한옥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흔한 나무로 지어지는 귀틀집과 너와집, 농촌의 벚짚으로 지붕을 얹은 초가집과 토담집 같은 흙집도 있다. (한옥문화원에서는 한옥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양평에 귀틀집을 짓는 등 모델 제시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한다.) 이 땅에서 선조들이 살면서 형성되어온 집들이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말한 대로 집을 포함한 문화라는 것은 지역의 기후와 지형, 생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현재도 문화와 기후가 달라졌으니 변화되고 있는 것이겠지 모든 게 그렇듯, 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지금은 한옥, 양옥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걸 굳이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냥 집으로서, 다양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옥이 오래된 미래이다. 모르는 게 새로운 것처럼,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 새로운 삶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고 극복하는 시기, 이후 경제발전이 최우선이 되며 그 방향성을 서구화에 두고 진행되었던 시기 동안 한옥이 역사상 단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절 이전의 한옥을 생각하지만, 만약 그런 단절이 없었다면 현재 다양한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말기처럼 집의 주종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옥이 어떻게 시대의 생활에 맞춰 변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단절로 인해 서양 건축의 기준으로 한옥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한옥의 대중화, 보편화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다. 한옥의 대중화와 한옥이 가야 할 길이라는 문제에 있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일단 기본을 아는 것이다. 옛 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 기본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새것은 세상에 없다. 한옥의 개념, 스며들어 있는 철학, 기법이나 자재 등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나쁜지를 알 수 있다. 기본을 안 후 거기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몫이다. 그건 다양할수록 좋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옥 건축은 인건비나 자재비 등 비용이 많이 들므로 다른 지점에서 한옥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업화와 기계화를 통해 건축비를 낮추는 방식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현대적인 자재와 방식으로 집을 짓더라도 예를 들어 한옥의 채와 채 사이의 배치 같은 개념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한옥문화원의 강좌 '아파트를 한옥처럼'에서와 같이, 집 내부에 천연 자재를 사용하는 등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떤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결국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일이다. 사람들이 각자의 여건과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 대비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 말이다. 변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 물었는데, 솔직히 나는 한옥이라는 원형의 기본을 알고 거기서 각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1. <한옥문화>

한옥문화원에서 발행하는 한옥 전문
계간지로, 2000년 11월의 창간호
이후로 현재 26호까지 발행되었다.
한옥문화원에서는 출판 외에도
한옥건축전문인과정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건축 자문
등의 건축 관련 일을 한다.

2. 머름, 그리고 기둥과 인방의 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한옥에서
문은 바닥부터 바로 시작되고 창은
조금의 공간을 두고 시작된다. 이
조금의 공간이 머름인데, 기능적,
심리적으로 일종의 완속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되게 편하고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겁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짓는 거지, 어떤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다. 한옥을 짓기 위해, 혹은 양옥을
짓기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어떤 시도도 가능한 것이다.

한옥에서 정신적인 집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한옥에 성리학적인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으니 정신적이기도 하다.
그렇기도 하지만 정신적이라는 표현을
다르게도 해석하면, 집 그리고 한옥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어진다.
동양철학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한옥
역시 관계지향적이다. 반면에 서양은
존재중심적이다. 아무 데나 원하는 터에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본다. 여기서 풍수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여기에 터를 잡으면 자손이 어쩔다는
식의 그런 풍수가 아니라, 바람골과 물이

흐르는 곳을 살피는 것이다.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드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하다못해 담가놓은 된장이 잘
익어가는가의 문제 역시 바람과 별이
좌우한다. 결국, 관계를 살펴서 전체
속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부안에
있는 내소사라는 절에 가 보면 비탈인
지형에 집이 두 채 들어서 있다. 살펴보면
되도록이면 지형에 손을 안 대기 위해
방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한쪽의 남는
공간에는 창고를 만들어 두었다.
집 뒤편으로 산이 있는데, 큰 봉우리 앞에는
큰 집이, 작은 봉우리 앞에는 작은 집이
있다. 산세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집을 지은
것이다. 사람을 생각한 일례로는, 창 아래로
두는 공간인 머름(사진 참고)이 있다.
기능적으로는 추위를 줄이고 심리적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훤히 드러나는
테서 오는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머름의
높이를 설정하는 기준은 방에 앉은 사람이

팔을 걸치고 편안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옥이 지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몇몇 예들이다.

오랜 세월 한옥을 곁에 두며 느낀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몇 마디로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는 질문이다. 그래도
수많은 것들 중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집과 집 사이로 형성되는 골목길, 암기와와
숫기와의 만들어내는 기맛골이나 처마선,
그리고 구조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벽의 선. 기둥과 인방이 서로 맞춰지는
것에 의해 벽이 지탱되는데, 흰 회벽에
목조로 가로세로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 몬드리안이 여기서 배우지 않았나
싶다.(웃음) 한옥은 집의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먼저 치목을 한다. 어떤 길이, 어떤
형태의 기둥이 필요할지를 보고 미리 다
만든 후 나중에 한꺼번에 조립을 하는
식이다. 모든 것이 딱 맞아서 짜여지는 걸
보면, 그 전체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www.hanok.org

